V리그 최대 화제 여자부 샐러리 캡 23억 원 확정 막전 막후

흥국생명 끝까지 반대…이사회 투표로 결정

5개구단 연합 18억+옵션 5억 제시
흥국 수정안 거부 전례 없던 표대결
새 규정 적용땐 이재영 최대연봉 7억
FA선수 기대이익 박탈 논란의 소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즌이 조기 종료돼 뿔뿔이 흩어졌던 V리그의 별들이 모처럼 모였다. 9일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19~2020 도드람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베스트7의 주인공인 임명옥(리베로), 이다영(세터), 양효진, 한송이(이상 센터), 이재영, 강소휘(이상 레프트·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국한 디우프(인삼공사)는 불참했다. 사진제공 | KOVO

최근 V리그의 가장 뜨거운 화제였던 여자부 샐러리 캡이 23억 원으로 확정됐다. 9일 한국배구연맹(KOVO)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연 이사회에서 다수결 투표가 벌어진 끝에 2020~2021 시즌 여자부 샐러리 캡은 기존의 1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4억 원이 늘었다. 신설한 5억 원의 '옵션 캡'을 추가해서 총액은 23억 원 규모다. 여자부 구단들은 내용 검증과 모든 선수의 연봉공개도 결정했다.

그동안 흥국생명과 나머지 5개 구단은 서로 다른 샐러리 캡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이사회에서도 양측 주장이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5개 구단 연합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 후퇴한 샐러리 캡 18억 원+옵션 캡 5억 원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 흥국생명은 이 방안마저 거부했다. 그러자 이사회는 흥국생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결정을 내렸다. 샐러리캡 확정을 놓고 이사회가 전례에 없던 표 대결을 한 것은 FA 선수로 공시될 예정인 선수들의 이동과 관련이 컸다.

5개 구단 연합은 흥국생명이 이재영(흥국생명)과 이다영(현대건설)을 함께 묶으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판단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5개 구단이 담합해서 특정선수의 몸값을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특히 "지금 당장 검증해야 한다"는 부분에 반감을 가졌다. "남자부처럼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FA 최대어 이재영이 받을 최대연봉은 4억5000만 원(18억 원의 25%)과 옵션 2억5000만 원(5억 원의 50%)을 합쳐 7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다른 FA 선수들의 몸값이 정해질 수 있다. 소문대로 이다영을 영입할 여력도 줄어들어 흥국생명이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지 궁금하다. KOVO는 공식 발표문에서 "연봉공개 등 검증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혔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새로운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이미 지난해부터 특정구단이 어느 선수에게 8억 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규정대로 검증을 할 경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FA 시장에서 받을 액수가 정해지면서 팀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 것은 뻔하다. 말만 FA 제도라는 비난도 각오해야 한다. 흥국생명은 "이미 대부분 구단이 최대 23억 원에서 17억~18억 원을 쓰는 마당에 총액 20억 원으로 제한해서 검증하고 제제하자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 연봉을 올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입장문을 이사회에서 발표했지만 다른 구단 단장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이사회는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의 개최시기와 진행방법 등은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LG, 현주엽 감독과 결별

재계약 않기로…새 감독 선임작업 착수


현주엽 감독

창원 LG가 현주엽 감독(45)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LG는 9일 "2019~2020 시즌을 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현 감독과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 감독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명해 이를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LG는 새 사령탑 선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팀 감독직을 놓고 다양한 루머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다. 말 그대로 소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2018 시즌부터 3시즌 동안 LG 사령탑을 지낸 현 감독은 2018~2019 시즌 팀을 4강 플레이오프(PO)에 진출시키는 등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2019~2020 시즌에는 줄곧 하위권에 머무는 등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LG가 전국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는데 있어 현 감독의 공이 적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기 종료된 2019~2020 시즌을 9위로 마쳤다는 점이 재계약이 불발되는 데 크게 작용한 듯 하다. 2019~2020 시즌 종료 직후부터 현 감독이 LG와의 재계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현역 시절 KBL을 대표하는 선수로 각광을 받았던 현 감독은 TV해설가로 농구계로 돌아왔다. 이후 프로팀 감독까지 올라섰지만 그토록 바랐던 우승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현 감독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명성은 화려했지만 프로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반지를 챙기지 못한 비운의 스타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트럼프카드는 점 치던 수단…동양서 서양 전파

KHSA와 함께하는 홀덤 이야기

●김학도가 말하는 포커의 역사

인도·중국서 유럽으로…'동양 유래설'
프랑스 전파된 뒤 지금의 형태로 정착
포커게임은 英서 시작, 18C에 룰 갖춰

다섯 장의 카드를 조합해서 더 높은 '족보'를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 포커. 여기서 사용하는 트럼프 카드는 놀랍게도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두 가지의 '동양 유래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7세기경 인도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카드를 만들어 점을 보던 것이 집시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7세기경 중국 당나라 시대에 엽자(葉子)라는 카드 속에 전설상의 인물이나 숫자를 그려 넣어 점을 쳤는데 이 카드가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설입니다. 이 두 가지 기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동양에서 유래되었다는 것과, 점을 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동양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이 카드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11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세트의 카드(한 목)가 78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잎새, 방울, 심장, 떡갈나무 열매의 네 가지 모양과 금화, 컵, 막대기, 칼의 네 가지 기호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프랑스에 전파되면서 세 잎클로버, 칼, 심장, 마름모 등으로 변하여 지금의 클로버(♣),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양들의 의미는 교제(♣), 파괴(♠), 사랑(♥),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모든 카드를 사람들이 직접 그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부유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의 모양은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두 가지 색상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드의 기원은 동양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유럽에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커게임의 기원은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에 기록된 첫 포커게임에 대한 내용은 1526년의 문헌에 나타나 있지만, 1700년대에 이르러서야 영국에서 다양한 베팅룰과 패널티 등 본격적인 룰을 갖춘 게임이 됩니다.

에드먼드 호일이라는 사람은 포커에 대해 "네 번의 게임 중 한 번은 베팅 또는 테크닉에 의해 승부가 뒤바뀌는 것이 바로 포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확률만으로 포커게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싸움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전해집니다.

포커라는 단어는 독일에서는 포헨(Pochen)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803년에 프렌치 아메리카(French America)에서 플레이된 포크(Poque)라고 불리는 비슷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 20여 년 동안 게임을 수정한 루이지아나(Louisiana) 지역의 영어를 사용하는 정착자가 그 이름을 포커라고 명명하였으며, 현대 포커게임의 근본이 형성됐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기회에는 포커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하나의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 힘들어하는 요즘 독자 여러분들의 행운♣과 사랑♥이 넘치는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예인 1호 프로 포커플레이어·KMGM 수석 팀프로 김학도

코로나19 이기는 슬기로운 집콕운동 3 플랭크 고급편

●하이플랭크·스파이더 플랭크의 운동효과

플랭크가 주는 전반적인 자세교정, 균형 감각 향상 효과와 함께 복부지방 감량 등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파이더 동작은 옆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에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자세입니다.


❶ 중급도 쉬워진 분들을 위해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급 플랭크 중 하이 플랭크를 알아봅니다. 우선 팔꿈치를 편 채로 손목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을 만듭니다.


❷ 이때 손목보다 어깨가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밀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깨가 무너지지 않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바닥을 지지합니다.


❸ 손으로 바닥을 미는 느낌으로 버팁니다. 손목이 아픈 경우는 푸쉬업 바를 잡고 해도 됩니다.


❹ 다음 단계의 고급 플랭크로 스파이더 플랭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❺ 플랭크를 하면서 옆구리를 단련하는 자세입니다. 엉덩이는 너무 위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❻ 이때 개구리처럼 다리를 골반을 열어 옆구리 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를 각각 5번씩 합니다.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공동기획〉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스포츠동아